

집보는 수탉과 노래하는 여우

러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수탉과 고양이를 기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숲 속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점심때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때 수탉은 혼자 남아 집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러 갔을 때 여우 한 마리가 할아버지의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여우는 창가에 앉아 있는 수탉을 보고 군침을 삼켰습니다.

‘저기 토실토실 살이 찐 수탉이 있네. 저놈을 피어서 잡아먹어야겠다.’

여우는 창가로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닭아, 닭아, 수탉아.
붉은 벼슬 수탉아.
창문 열고 밖을 보렴.
맛있는 완두콩 줄게.

수탉은 여우의 노래를 듣고 솔깃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때 여우가 재빨리 닭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숲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어린 새끼들과 나눠 먹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수탉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우가 나를 잡아가요! 고양이 형, 나 좀 구해 줘요!”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마침 숲 속에 있던 고양이가 수탉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단숨에 달려와 여우에게 텀벼들었습니다. 여우는 수탉을 놓아 주고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고양이는 다음 날 점심때 할아버지에게 가며 수탉에게 단단히 일렸습니다.

“여우가 와서 꺾어도 집 안에 꼼짝 말고 있어. 여우는 너를 빼도 남기지 않은 채 모조리 먹어 치울 거야.”

“알겠어, 고양이 형. 시키는 대로 할게.”

고양이가 집에서 나가자, 수탉은 창가에 앉아 있지 않고 집 안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또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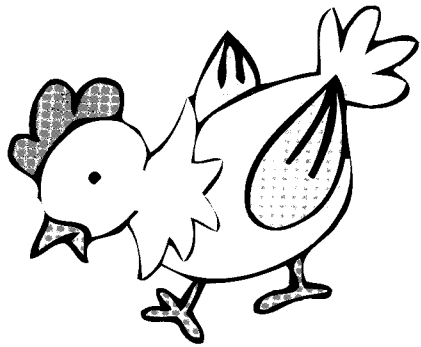
여우는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보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닭아, 닭아, 수탉아.

붉은 벼슬 수탉아.

창문 열고 밖을 보렴.

맛있는 완두콩 즐겨.



그러나 수탉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닭아, 닭아, 수탉아.

붉은 벼슬 수탉아.

창문만 열어 주렴.

완두콩 던져 즐겨.

수탉은 여우가 완두콩을 던져 준다고 하자 군침을 흘렸습니다. 얼른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완두콩을 던져 주었습니다.

수탉은 쪼뼛하게 완두콩을 주워 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는 나를 빼도 남기지 않은 채 모조리 먹어 치울 거지?”

여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너를 잡아먹니? 우리는 친구 사이인걸.”

“거짓말하지 마. 너는 지난번에 나를 잡아가려고 했잖아.”

“아, 그건 말이야. 너한테 우리 집을 구경시키려던 참이었어. 우리 집이 정원도 있고 꽤 넓거든.”

여우는 수탉을 안심시킨 뒤 또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닭아, 닭아, 수탉아.
나의 친구 수탉아.
창문 열고 밖을 보렴.
맛있는 완두콩 즐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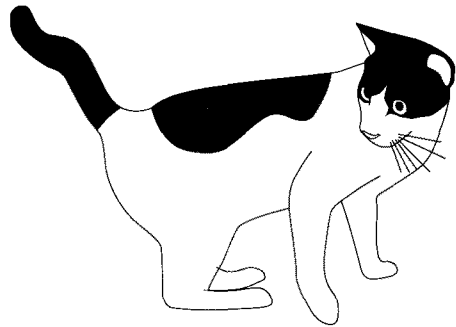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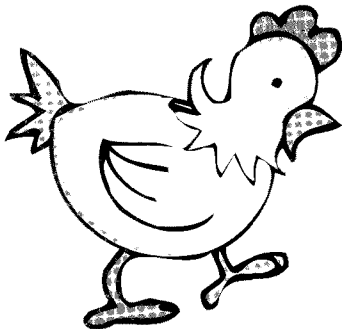
수탉은 조금 전에 완두콩 한 개를 얻어먹었습니다.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수탉은 완두콩을 또 얻어먹으려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닭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숲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우가 나를 잡아가요! 고양이 형, 나 좀 구해 줘요!”

마침 숲 속에 있던 고양이가 수탉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단숨에 달려와 여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여우는 수탉을 놓아 주고 자기 집으로 도망쳤



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양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며 수탉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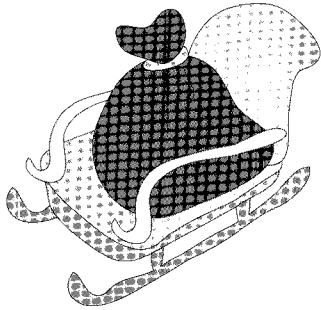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여우가 와서 꺾어도 집 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지 마. 여우는 너를 빼도 남기지 않은 채 모조리 먹어 치울 거야. 네가 잡혀가면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어. 오늘은 내가 할아버지 일을 돕기로 해서 더 먼 숲으로 갈 거란 말이야.”

“알겠어, 고양이 형. 이번에는 꼭 암전히 있을게. 내 걱정은 말고 잘 다녀와.”

고양이가 할아버지를 따라가자 집 안에는 수탉만 남았습니다. 수탉은 집 안에 암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또다시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어제 그제와 마찬가지로 목청을 돋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닭아, 닭아, 수탉아.
나의 친구 수탉아.
창문 열고 밖을 보렴.
맛있는 완두콩 즐겨.



그러나 수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
다. 집 안에 들어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

다. 여우는 똑같은 노래를 세 번이나 불렀습니
다. 그래도 수탉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

다. 여우는 시끄럽게 창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
다.

“수탉아, 무슨 일이니? 갑자기 병어리가 되었
니?”

수탉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

다. “나는 너한테 안 속아! 절대로 창문을 열고 밖
을 내다보지 않을 거야!”

“수탉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 보렴. 지난번
에도 말했지만 나는 너를 잡아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 하늘을 두고 맹세하라면 맹세할 수도 있
어. 내가 오늘 왜 또 왔는지 아니? 너한테 완두
콩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야. 완두콩을 한 자
루나 가지고 왔거든.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인
지 창문을 열고 내다보란 말이야.”

여우는 잔뜩 말을 늘어놓은 뒤 노래를 불렀습
니다.

닭아, 닭아, 수탉아.
의심 많은 수탉아.

창문 열고 확인하렴.
완두콩 한 자루를.

수탉은 여우가 완두콩 한 자루를 가져왔다고
하자 군침을 삼켰습니

다. ‘완두콩 한 자루만 있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여우가 과연 나를 위해 완두콩 한
자루를 가져왔을까?’

수탉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서 여우가 가져왔다는 완두콩 한 자루를 보려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번개처럼 닭의 목덜미를 낚아
채어 숲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이 울면서 소리쳤습니

다. “여우가 나를 잡아가요! 고양이 형, 나 좀 구
해 줘요!”

그러나 고양이는 수탉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
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일을 도우
러 더 먼 숲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우는 수탉을 등에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갔
습니

다. 그리고는 새끼들과 함께 수탉을 뼈도
남기지 않은 채 모조리 먹어 치웠습니

다. 저녁때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고양
이는 수탉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
양이는 슬피 울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여우한테 붙잡혀갔구나. 여우를 조심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건만…….”